

사무엘하 2장 24-32절 말씀

③

- 24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
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 기아 맞은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
- 25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
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
- 26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
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
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
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
- 27 요압이 이르되
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
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
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
- 28 요압이 나팔을 불매
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
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

④

- 29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
밤새도록 걸어서
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
- 30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
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
- 31 다윗의 신복들이
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삼백육십 명을 죽였더라
- 32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
요압과 그의 부하들이
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